

KIA 코칭 스태프 개편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손승락 2군 감독·정명원 1군 투수 코치...서재응·최희섭 잔류군
1군 김종국 감독·진갑용 수석코치 유지...이범호 1군 타격 전담

TIGERS
KIA 타이거즈가 2023시즌을 위해 코칭스태프 새 판을 짜다. KIA는 26일 손승락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를 퓨처스 감독으로 임명하는 코치진 개편안을 발표했다.
1군은 김종국 감독을 중심으로 해 진갑용 수석 코치가 그대로 팀을 이끈다. 올 시즌 퓨처스 감독을 맡았던 정명원 코치가 1군 투수 코치로 이동했고 불펜에서는 그대로 박정철 코치가 역할을 맡는다.
서재응 투수 코치는 잔류군으로 이동했다. 이범호·최희섭 체제로 운영됐던 1군 타격 지도는 이범호 코치가 전담한다. 최희섭 코치는 서재응 코치와 잔류군에서 선수들을 지도한다.

이현근 작전코치, 조재영 주루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는 내년에도 1군에서 역할을 맡는다. 새로운 수비 코치로 퓨처스 리그에 있던 박기남 수비 코치가 합류했다.
퓨처스팀은 손승락 감독을 중심으로 홍세완 타격 코치, 이상화 투수코치, 박효일 주루코치, 윤해진 수비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로 구성됐다.
퓨처스 투수 코치는 추가로 영입할 예정이며, 개편된 코칭스태프는 27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한다.
KIA는 송지만, 류택현, 강철민, 김민우, 나주환, 강성우 코치와 배요한, 정상욱, 윤인득 트레이닝 코치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KIA는 이번 개편에 대해 “팀 분위기 쇄신과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했다.
올 시즌 김종국 감독·장정석 단장 체제로 새로 출발한 KIA는 4년 만의 ‘가을 잔치’에는 성공했지만 투자와 기대에는 부족한 시즌을 보냈다.
4위와 10.5경기 차 5위로 어렵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하면서 1경기로 가을 무대가 끝났다. 순위 싸움의 고비에서 9연패에 빠지기도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비해 결과와 과정 모두 아쉬웠다.
퓨처스 선수단도 36승 1무 67패, 0.350의 승률로 남부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선발진, 내야가 동시에 붕괴하면서 체계적인 육성을 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시즌이 끝난 뒤 선수단 정리 작업에 나선 KIA는 코칭스태프에도 변화를 주면서 ‘쇄신’을 키워드로 삼았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손승락 퓨처스 감독이다.

KIA는 지난 1월 은퇴 후 국내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야구 공부를 해온 손승락을 코디네이터로 영입했다. 미국 LA다저스 메이저리그 캠프 코치 연수에도 참여한 그는 올 시즌 KIA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뒤 퓨처스 감독자리까지 올랐다.
KIA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수 발굴과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지휘봉을 맡겼다”고 손승락 선임 퓨처스 감독 선임 배경을 밝혔다.
타격 코치 단일화도 눈에 띄는 변화다.
KIA는 올 시즌 최희섭·이범호 코치에게 1군 타격을 맡겼고, 2군은 송지만·홍세완·윤해진 타격코치 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집중력 있는 지도를 위해 KIA는 이범호, 홍세완 코치에게 각각 1군과 2군 타격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한편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타이거즈 홈런왕’ 나지완은 KIA에서 지도자로 첫발을 내딛지 못했다. KIA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 나지완에게 코칭스태프 제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6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2-2023 UCL 조별리그 G조 5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도르트문트의 프리킥을 막기 위해 일제히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5경기 무패행진 조 1위 확정

UCL 조별리그 G조 5차전 도르트문트와 0-0 비겨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이하 맨시티)가 유러피언컵 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5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하며 조 1위를 확정했다.
맨시티는 26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2-2023 UCL 조별리그 G조 5차전 원정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독일)와 0-0으로 비겼다.
5경기에서 3승 2무로 무패를 이어가 승점 11을 쌓은 맨시티는 조 1위를 굳혔고, 2승 2무 1패로 승점 8을 기록한 도르트문트는 2위로 16강에 진출하

게 됐다.
다음 달 3일 열린 최종 6차전에서 맨시티가 지고 도르트문트가 이겨 나란히 승점 11이 되더라도 상대 전적에서 맨시티가 1승 1무로 앞서 순위가 뒤집힐 수 없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데뷔하자마자 11경기에서 17골을 폭발하며 득점왕을 바라보는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은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친정을 방문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득점 없이 후반 시작 때 교체됐다.

세비야(스페인)는 코펜하겐(덴마크)을 3-0으로 완파, 승점 5(1승 2무 2패)로 G조 3위를 굳혔다. 코펜하겐(승점 2)은 최하위로 탈락이 확정됐다.
H조에선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이하 PSG)과 벤피카(포르투갈)가 동반 16강행에 성공했다.
PSG는 마키비 하이파(이스라엘)와의 홈 경기에서 7-2 대승을 거뒀고, 벤피카는 유벤투스(이탈리아)를 4-3으로 따돌렸다.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3승 2무로 승점 11을 올리고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1-1로 비겨 상대 전적도 같다.
조별리그 전체 골 득실에서 PSG가 +8로 벤피카(+4)에 앞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PSG에선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두 골씩을 터뜨렸고, 네이마르와 카를로스 솔레르가 각각

한 골을 보냈다. 여기에 상대 자책골도 더해지며 완승했다.
특히 메시는 도움도 2개를 작성, UCL 역사상 최고령(35세 123일)에 한 경기 ‘ 멀티 골’과 ‘ 멀티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벤피카는 하프 실바의 멀티 골을 포함해 후반 15분까지 4골을 몰아넣으며 유벤투스를 제압했다.
3위 유벤투스는 승점 3(1승 4패)으로 1·2위와의 격차가 승점 8로 벌어지며 2013-2014시즌 이후 9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봤다.
E조의 첼시(잉글랜드)는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 조 1위(승점 10·3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F조에서 이미 16강행을 확정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라이프치히(독일) 원정에서 2-3으로 졌으나 1위(승점 10)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U-20 아시안컵 축구 한국 대진은 좋다

타지키스탄·요르단·오만과 한조

우리나라가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팀들이 정해졌다.
한국은 26일 오후(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진행된 2023 AFC U-20 아시안컵 조 추첨 행사에서 타지키스탄, 요르단, 오만과 함께 C조에 속했다.
직전 2018년 대회 준우승팀인 한국은 같은 1번 포트에 속한 개최국 우즈베키스탄과 2018년 대회 우승국 사우디아라비아, 2014년 대회 우승팀 카타르뿐만 아니라 강호로 꼽히는 호주, 일본도 모두 피하게 됐다.
이번 대회는 내년 3월 1~1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달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대회 예선 E조에서 스리랑카(6-0승), 몽골(7-0승), 말레이시아(6-2승)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내년 열릴 본선에는 예선에서 각 조 1위에 오른 10개국, 그리고 2위 팀 중에서 성적이 좋은 5개 팀에 개최국 우즈베키스탄까지 총 16개 팀이 참가한다.
4개국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다.
이 대회에서 상위 4위 안에 들면 내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권을 얻게 된다.
최근에는 AFC U-19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짝수 해에 열렸던 이 대회는 2020년 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고, 2023년부터 AFC U-20 아시안컵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한국은 오는 11월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2연전을 통해 본선을 대비한 현지 적응에 나선다. /연합뉴스

이강인 ‘베스트 11’

프리메라리가 11라운드

친정팀을 상대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린 이강인(21·마요르카)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1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26일(한국시간) 라리가 사무국이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한 2022-2023시즌 라리가 11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3일 스페인 발렌시아 메스타야에서 열린 발렌시아와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1-1로 맞선 후반 38분 역전 결승골로 마요르카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상대 골 지역 왼쪽에서 다니 로드리게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침착하게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원반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8월 28일 라요 바예카노와 3라운드(마요르카 2-0 승)에서 시즌 마수결이 골을 기록한 뒤 약 2달 만에 나온 시즌 2호 골이다.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2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8월 마요르카 이적 전까지 유스 시절을 포함한 10년간 발렌시아에 몸담았던 이강인은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은 뒤 골 세리머니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강인은 경기 뒤 최우수선수(MOM·Man of the Match)에 선정됐으며, 득점 장면은 현재 ‘마요르카와 함께 메스타야로 돌아간 이강인이 빛났다’는 글과 함께 라리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진에는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르히오 레온(레알 바야돌리드), 우스만 뎀벨레(바르셀로나)가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로는 이강인과 함께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 곤살로 벨레로(알메리아), 나빌 페키르(레알 베티스)가 뽑혔고, 수비진에는 다비드 로페스(지로나), 플로리안 르죈(라요 바예카노), 곤살로 베르두(열체)가 포함됐다. /연합뉴스

“‘MLB 홈런왕’ 에런 저지 팀 옮긴다면 SF 유력”

베팅업체들 분석

올 시즌을 끝으로 미국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는 ‘정정 홈런왕’ 에런 저지(30·뉴욕 양키스)가 만약 팀을 옮긴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다음 행선지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 NBC스포츠 등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업체들은 저지가 양키스를 떠난다고 가정한다면 샌프란시스코, 뉴욕 메츠, 로

스앤젤레스 다저스 순으로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베팅업체 ‘스포츠편칭’은 배당률을 샌프란시스코 ‘+200’, 메츠 ‘+250’, 다저스 ‘+350’으로 책정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600), 텍사스 레인저스(+800)가 뒤를 이었다.
‘+200’은 100달러를 걸면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른 베팅업체 ‘포인츠베트’는 샌프란시스코

‘+200’, 메츠 ‘+275’, 다저스 ‘+300’ 순으로 배당률을 매겼다. 그 뒤로는 휴스턴(+600), 보스턴 레드삭스(+800)가 따랐다.
두 업체 모두 1위로 점진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밀려 포스트시즌 진출에 탈락하자 저지 영입을 통해 팀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관계자는 미국 지역지 NJ닷컴에 “저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구단은 많은 돈을 거기에 쓸 것”이라며 “만약 계약 성

사에 실패한다면 금액 문제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FA 최대어로 손꼽히는 저지는 올 시즌 62홈런을 기록하면서 1961년 로저 매리스가 세웠던 아메리칸리그 시즌 최다 홈런 기록(61개)을 61년 만에 갈아치웠다.
내셔널리그에 배리 본즈(73개), 마크 맥과이어(70개·65개), 새미 소사(66개·64개·63개) 등 더 많이 홈런을 친 선수가 있지만, 저지는 불법 약물에 기대지 않은 ‘깨끗한 홈런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4월 양키스의 연장 계약안(8년 2억3050만달러)을 거절했던 저지는 아직 거취에 대해 합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